



## 존 헛셀링크, “칼빈의 신앙교육서들(Catechisms)에 나타난 교리(Doctrina)” 논평

문병호(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헛셀링크 박사는 저명한 칼빈 신학자로서 미국 칼빈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미시간 주 홀랜드(Holland)에 위치한 RCA(Reformed Churches in America, 미국 개혁 교회) 교단에 속한 웨스턴 신학교(Western Theological Seminary)의 학장이었으며 다년간 조직신학 교수로서 봉직한 후 은퇴해서 현재 명망 있는 원로들로 구성된 미국 고등 교육 협의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헛셀링크 박사는 많은 저서와 책들을 남겼는데, 특히 [칼빈의 율법 개념(Calvin's Concept of the Law)]은 당해 분야의 독보적인 책으로 평가 받아 왔으며, [개혁됨에 관해서(On Being Reformed)]는 개혁교회 신앙의 고유성을 훌륭하게 부각시킨 작금의 고전으로 이미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번역자 배틀즈(Ford Lewis Battles)가 번역해서 유고로 남겨 둔 칼빈의 제 1차 라틴어 신앙교육서를 자신이 일생 동안 가르친 조직신학과 개혁신학의 강의안을 토대로 해설한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 주석(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을 약 10년 전에 탈고했다. 금번 엠덴(Emden)에서 열린 세계 칼빈 학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제된 본 논문은 이 책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과 후기 종교 개혁자들은 신앙교육서(Catechismus, Catechism)를 남기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다. 신앙교육서는 정확한 신학적 교리를 함유해야 할 것이며, 문체가 간결하고 명료해서 교육하기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고백적이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로 심오한 신학자들의 만년의 작품 목록에 오른다. 그러나 칼빈은 제 1차 신앙교육서를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한 다음해인 1537년 제네바 교회에 헌정한다. 불과 28살의 나이에 기독교 교육의 현장인 신앙교육서를 [신앙 교육과 고백(Instruction et confession de foy)]이라는 제목으로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탈고한 것이다. 이 작품은 이듬해 [신앙교육서 혹은 기독교 교육의 강요(Catechismus, sive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 . .]라는 제하에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국경을 넘어서 전체 교회가 읽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칼빈이 제네바로부터 곧 추방되었으므로, 제 1차 신앙교육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그가 스트라스부우르(Strasbourg)에 망명 갔다가 다시 제네바로 귀환해서 교회의 직분과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 규칙(Les Ordonnances ecclésiastiques)]을 제정한 후, 교리 교육을 위해서 [제네바 교회 신앙교육서(Le Catéchisme de l'église de Genève) . . .]라는 이름으로 작성한 제 2차 신앙교육서는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의 개혁 교회들과 성도들의 교리 교육과 삶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 1차 신앙교육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불어로 먼저 출판했으며(1542), 다른 언어권의 교회를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해서 동명으로(Catechismus ecclesiae Genevensis . . .) 출판했다(1545). 칼빈의 제 1차 신앙교육서는 중요한 교리를 33 주제로 나누어서 초대 교회의 신앙의 규범(regula fidei)과 같이 문답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다룬다. 그러나 제 2차 신앙 교육서는 연중 교육을 위해서 주마다 주제가 분류되는 373 문답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catechismus를 요리문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 부적절하다.

본 논고에서 헛셀링크 박사가 고찰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떻게 1537/8 신앙교육서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39년 제 2판의 교량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1539년의 기독교 강요가 1542/5 신앙교육서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신앙 교육서의 “교리(doctrina)”는 자녀들과 무지한 성도들의 수준에 맞추어 당대 다른 작품들을 단지 용도에 맞게 편집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리의 개념은 단순히 가르침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설교와 선포를 포



함한다. 교리의 기원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에 잇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닿는다. 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알게 하고, 뜻대로 살게 하고, 뜻 가운데 진보하게 한다. 교리 가운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지체가 자라감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aedificatio). 이러한 교리는 보편성을 갖는데 이에 대한 합의(consensio)의 모델(specimen)로서 신앙교육서가 제시되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취지로 신앙교육서를 본국어(vernacular)와 라틴어로 함께 썼다.

제 1차 신앙교육서와 제 2차 신앙교육서의 차이를 먼저 그 편별(ordō docendi, the order of teaching)에서 찾아본다면, 전자가 율법-믿음(사도신경 해석)의 구조를 취한 반면 후자는 믿음을 율법 전에 다룬 점이 현격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1539년 기독교 강요 이후 칼빈이 강조한 성도들을 위한 율법의 규범적 용법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말해 주지는 않는다. 이미 그는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 한 장(#17)을 할애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록해짐으로써 율법을 순종함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줄곧 율법의 본질을 삶의 규범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제 2차 신앙교육서에는 예정론에 관한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편집에 있어서 가장 위치 변화가 심한 교리가 예정론이었다. 이 교리는 초판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장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마지막 판에서는 성도의 은혜의 방편의 일부로서 기도론 이후에 다루어진다. 다만 이예정론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시종여일했다. 그 이유는 불명하지만 제 2차 신앙교육서에 예정론에 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이 단지 신앙교육서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현격한 차이로 지적되는 것은 이전의 신앙교육서와는 달리 제 2차 신앙교육서에는 개혁주의의 전적 타락 교리에 해당하는 “인간”(#4), “자유의지”(#5), “죄와 죽음”(#6)에 관한 장이 없으며, 교회와 국가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간의 전통”(#31), “출교”(#32), “시민통치”(#33)에 관한 주제들도 별도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 다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제 1차 신앙교육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기독교 강요에서 초판 이후 줄곧 “칭의의 부록”이라 불리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언급이 신앙교육서들에는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서들의 차이점과 그것들과 기독교 강요의 차이점을 일별한 후 헷셀링크 박사는 신앙교육서들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리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하여서 고찰한다. 먼저 성찬 교리를 통해서 교리의 강화(augmentation)를 다룬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는 실체 그 자체(substantiam ipsam)가 아니라 은총에의 참여를 말했다. 그리고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는 성령의 띠(vinculum)로 말미암은 교통(communicatio)이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강조점의 변화를 거쳐서 1539년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한 참여(participes substantiae eius)가 명확히 공표되었다. 이러한 입장이 제 2차 신앙교육서에 또한 명문화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성령론을 통해서 교리가 어떻게 시기적으로 정치(精緻)하게 발전했는지 고찰한다. 1536년 기독교 강요에 제시된 교리가 제 1차 신앙교육서에서 전개되는 바, 성령이 말씀의 조명, 내적 감화로서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더불어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한 고리로 묶여 있는 말씀과 성령의 역동적 관계에 수시로 문의한다. 이와 같이 이미 초기 작품에서 성령의 신학자로서 효시를 보였던 칼빈은 제 2차 신앙교육서에서 성령의 내적 사역을 기독교론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아서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교리가 부각된다. 특히 제정된 말씀에 따른 세례를 거행함으로써(signify) 표징(sign)이 의미(significance)가 되는 성례의 신비를 성령론의 관점에서 더욱 심오하게 다루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서 헷셀링크 박사는 신앙교육서의 교리적 기원과 자체 교리성을 설명한다. 기독교 강요가 교훈적(pedagogical), 변증적(apologetical), 고백적(confessional, credal)이라면 신



양교육서는 그 정수의 선포라고 할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그 한 책의 사람(man of the single book)”이 아니었다. 기독교 강요의 신학은 신앙고백서로 흘러들어 갔으며 또한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주석의 주해가 교리의 기초가 되었고 설교로 적용되었으며 신학 논문들 가운데 변증되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설교를 강조했다. 그는 성령의 신학자였으며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를 강조한 실천적인 목사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의 교사였다. 시기적으로 전개된 그의 교리에는 놀라운 일치성과 연속성이 있었다. 반면 한 신학자가 지식의 부요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충분한 다양성도 있었다. 신앙교육서는 경건의 기초 교리를 가르친다. 그곳에는 아이들과 배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맞추심(accommodatio)이 있다. 신앙교육서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지혜를 새겨 주시는 장소이다. 교리는 선조의 가르침에 잇대며 말씀인 성경에 닿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서는 교리를 가르쳐 고백하게 하는 책이다. 이것이 신앙교육서의 진리성이며 시사성 혹은 역사성이다.